

# 국어와 세계화

김대행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 1. “한국어, 어려워요.”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어를 공부했다는 그 젊은이는 원숭이 공원으로 안내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무섭다 원숭이 공원입니다.” 그 젊은이는 한국어를 배우는 데 ‘무섭다, 무섭고, 무서운, 무서워서, 무서우니……’로 바뀌는 어미 변화가 깜깜한 동굴을 헤매는 것처럼 어렵다고 했다.

러시아에서 한국말을 배우러 온 지 석 달이 되었다는 늘씬한 아가씨는 용돈을 위해 식당에서 심부름을 한다. 그가 쓰는 말은 “이모야, 밥 한 개 준다.”나 “김치 여기 있다.”다. 그는 어떤 때 경어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했고, 그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폭소하기 때문에 손님 앞에서는 입을 다물도록 하고 있었다.

미국에서 한국어 교육을 근 이십 년 가까이 했고, 지금은 그 방면의 경영자가 되어 있다는 분은 이렇게 말하였다. “한국어 가르치기 참 어렵습니다. ‘수놈, 수소, 수사돈……’으로 정했으면 일관성이 있어야지, 쥐나 양은 왜 ‘숫 쥐, 숫양’으로 정합니까? 이런 예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미국 아이들은 그

걸 이해 못합니다.” 불만은 계속되었다. “한번 ‘일찌기’라고 했으면 그대로 지키지 왜 ‘일찍이’로 고칩니까? ‘빌어 오다’할 때는 ‘빌다’, ‘빌려 주다’ 할 때는 ‘빌리다’로 했으면 되는 거지 그걸 또 고쳐서 ‘빌리다’로 통일하는 건 뭐가요? 이렇게 뒤죽박죽이니 한국어 교육, 참 죽을 노릇입니다.” 영어에도 불규칙 동사라는 게 있지 않은가고 반문하고 싶었지만 참고 있는데 다시 이렇게 덧붙였다. “한국어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맞춤법과 표준어를 쉽게 고쳐야 합니다.”

맞춤법을 정하는 사람들이 체계 자체의 일관성만을 생각하여 이리저리하게 쓰라고 할 수만 있다면 외국 사람이 한국어를 배우는 데 품이 좀 덜 들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그 일이 당키나 한 노릇인가? 남의 구미에 맞게 우리 문화를 뜯어고쳐야 세계화가 쉬워진다는 발상에 이르게 되면 이건 큰일이 아닐 수 없다. 먼저 ‘한국어의 세계화’라는 것의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 2. 해외의 한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이 여러 방면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학과에도 매년 6-7 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학부와 대학원 과정에 입학해 오고, 논문을 써서 학위를 받고는 귀국한다. 귀국해서는 대개 한국어 교육 관련 강좌를 담당하는 교수가 되거나 그와 관련이 깊은 일에 종사하고 있다.

한국학과가 있는 대학이 전 세계를 통틀어 너댓 군데밖에 안 되고 그나마 수강생이 없어서 그곳에 나가 있는 우리 대사관 직원들이 수강 신청을 해서 억지로 학과를 유지시키던 시절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금석지감이 없지 않다. 이쯤 되었으니 한국어의 세계화를 말해도 전혀 주재님지 않다는 자부심도 생긴다. 그러나 이 정도를 가지고 우쭐대면 세상이 웃을지도 모른다.

프랑스의 파리 제7대학에 있는 한국학과의 교수 한 분은 한국학과 학생들

에게 일본학이나 중국학을 반드시 부전공으로 이수하도록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지 않고는 그 학생들의 전도를 보장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하였다.

영국의 런던대학은 스킨랜드 교수 등이 일찍이 자리를 잡아 유럽의 한국학을 이끌었던 공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대학도 동아시아학과에 한국학은 한 전공으로 분류되어 있을 따름이다. 한·중·일이 한 학과에 속해 있지만 그 세의 차이는 도서관에 가 보면 한눈에 느낄 수 있다. 중국과 일본의 도서는 대체로 도서관의 한 층을 통째로 차지하고 있는 반면 한국 관련 도서는 겨우 십여 개 정도의 서가를 채우고 있는 정도다. 그러니 교수나 학생의 수효는 일러 무삼하리요. ‘한국어 세계화 운운’ 하면서 목에 힘을 주다가 그 실정을 보면 자라목처럼 움추러든다. 그래도 이런 대학은 그나마 형편이 괜찮은 편이다.

최근에 인도의 네루대학에 들른 일이 있었다. 동아시아학과에서 한국학을 전공으로 공부하고 있다는 학생을 교문 앞에서 만난 것은 행운이었지만, 그 도서관의 저 구석에 정부 간행물 수준의 스무너덧 책이 한국학 도서의 전부인 것을 보고 황당함을 넘어서서 끔찍함을 느꼈다. 그 동안 열심히 해외를 향해서 돈도 보내고 책도 보내고 했는데 그것은 다 어디로 갔을까?

### 3. 누구를 위한 한국어 세계화인가

외국에 있는 한국학자들은 이른다. “왜 한국 돈은 미국으로만 가는가?” 미국에 가서 들으면 이른다. “왜 한국 돈은 어느 특정 대학에만 쏟아붓는가?” 그런 말이 무엇에 근거를 두고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그러나 왜 한국어 세계화이고 누구를 위해 한국어를 세계화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바로 볼 필요가 있다.

이른바 서양 선진국이 한국어 또는 한국학에 관심을 가졌던 까닭을 우리가 짐작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렇다. 그들이 한국 또는 한국의 문화를 동경

해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진 것은 결코 아니었다. 한마디로 말해 그 일은 이른바 '세계 경영'의 욕구와 맞물려 있는 일이었다. 그러기에 그들 중에는 한국어도 모르는 채로 한국학자 행세를 하는 사람조차도 있다. 그런 사람일수록 제 나라의 대한민국 정책 수립에 편견에 찬 견해를 제시하여 영향을 끼쳤다. 오늘날에도 한국학 관련 국제학술회의가 영어로 진행되는 것을 어색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다 이런 유습이다.

힘센 아이와 약해 빠진 아이가 진정한 친구가 되는 일을 본 적이 없다. 약한 아이는 힘센 아이의 가방이나 들어다 주면서 주먹의 보호를 받는 광경이 어린 시절의 추억이다. 한국어 세계화를 외치는 지금도 우리는 인종적 편견과 간관주의를 버리지 못한 채로 가방 들어다 주기를 계속해야 하는 것일까? 진정으로 우리와 친구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무지와 몽매에 찬 알보기로 대하면서 한국어 세계화가 과연 가능한 할까?

세계화란 결국은 세계의 여러 공동체들이 한 마당에서 만나는 일이다. 그러기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해야 한다. 공동체마다가 지니고 있는 정체성과 그 공동체를 복 되고 훌륭한 곳으로 만들어 가려는 노력을 받아들여야 한다. 한국어 교육도 그런 정체성의 확보 또는 공존을 위한 것이라야 한다. 그것이 인류에 가득한 세계화의 모습이다. 생각해 보라. 올림픽에서 뛰는 선수가 자기 나라를 의식하지 않고 세계인이기만 하는 대회를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그러기에 우리말을 교육하고 세계화하는 일도 문법 이전에 우리 문화를 교육하고 우리의 공동체적 정체성을 알리고 존중받는 일일 수밖에 없다.

#### 4. 민족적 정체성과 한국어

미국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치르는 시험인 SAT에 한국어가 정식 과목이 되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그것이 1992년 4월 29일 LA폭동을 계기로 성사되었다는 배경을 확인한 것은 일종의 놀라움이고 생각의 틀을 바

꾸게 하는 충격이었다. 한국어 과목이 SAT에 채택되었다기에 ‘우리도 이제 상당히 컸구나’라고만 생각했었지 그 우울했던 사건이 이런 일의 배경이 되었으리라고는 짐작도 못했기에 강렬한 깨달음을 주었다.

캘리포니아대학교에서 소수민족학을 전공하고 있는 장태한 교수는 그 배경을 이렇게 요약해 주었다.

“4.29 폭동은 멀어져 가던 이민 1세와 2세 간의 간격을 좁히고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소위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identity crisis)를 겪으면서 방황하던 2세들에게 코리안 아메리칸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했다. 폭동으로 부모님 세대가 얼마나 심한 인종 차별을 겪고 있으며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1.5세와 2세들은 깨닫기 시작했다. 비로소 코리안 아메리칸의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될 수만 있으면 한인 사회와 멀리 떨어져 살려고 하던 1.5세와 2세들이 커뮤니티 봉사를 자청하고, 1세와 2세가 협심하면 한인 사회의 문제를 하나 둘씩 풀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었다. <중략>

4.29 폭동을 통해 얻은 가장 값진 수확은 한인들도 이제는 모국지향적이고 고립된 삶에서 벗어나 다민족 사회의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의식을 갖게 된 점이다. 미 주류 사회로의 동화가 아닌 ‘융화’를 통해 타민족과 함께 사는 지혜를 습득하려는 한인들의 기본 생활에 큰 변화가 왔다. 흑인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한인 사회에서 일어났으며, 라틴계, 백인, 그 밖의 다른 민족과도 어울려 동참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귀중한 교훈을 얻었다.”

인식과 행동 방식이 이렇게 바뀐 것을 바탕으로 한국어에 대한 애정이 싹트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모금 운동으로 이어져 1997년에 드디어 SATⅡ의 한 과목으로 한국어가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 어, 에스파냐 어,

히브리 어, 이태리어, 라틴 어와 함께 서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그런 일을 위하여 교민들이 합심해서 미국 전역에서 모금을 하는데 한국의 지원기구는 쥐꼬리만한 돈밖에 지원하지 않은 것을 재미 한인들은 지금도 못내 아쉬워하고 있었다.

지난 여름에는 미국 전역의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들의 모임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열정과 노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아직은 비록 미미한 수준이지만 점차 한국어를 채택하는 고등학교의 수가 늘어나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미국인이 불어나고, 거기에 효과적인 교육 방법과 열정이 더해진다면 한국어 세계화는 그런 정체성과 문화 공존을 바탕으로 한 인류애의 불길로 번져 갈 것을 확신해도 좋다고 다짐을 두었다.

## 5. 세계화 시대의 한국어 교육

미국에서 나고 자라 미국 영어의 원어민이 되고 미국 시민권까지 지녀서 그야말로 미국의 주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민 2세들이 4.29 폭동을 계기로 자신의 정체성을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아메리칸 드림만을 꿈꾸면서 환상에 젖어 있다가 문득 깨달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곧 그들에게는 삶이라는 현실에 대한 자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이 우리에게는 '세계화'라는 단어가 지닌 참뜻을 깨우쳐 준다.

미국 시민이면서도 한국계 미국인들은 '미국화'가 덜 되어서 정체성을 깨닫게 되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대답의 자리에 '세계화'를 끼워 넣어 보면 세계화가 뜻하는 바가 진정 무엇인가가 명료하게 떠오른다. 미국화가 되면 될수록 자신의 정체성인 '한국계'가 문제되었듯이 세계화가 되면 될수록 '한국인'의 정체성이 중요한 의미를 띠게 된다는 것을 LA의 교훈은 시사해 준다.

그러기에 세계화라는 구호에는 약자의 고민과 강자의 계약이 교묘하게 뒤섞여 있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이런 생각이 편벽되거나 국수주의적

인 것이 아님을 확인하게 해 주는 것이 '문화 상품의 세계화는 있지만 문화의 세계화란 없다'는 장 피에르 바르니에(Jean-Pierre Warnier) 같은 사람의 말(주형일 옮김, 『문화의 세계화』, 한울, 2000)이다. 진정 그러하다. 장사꾼의 안목으로 바라보는 오늘은 세계가 한 마당이요 한 덩어리의 시장일 따름일 것이다. 그러나 인간과 삶의 본질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영원히 한국인으로서 사는 것이며, 그것을 지탱해 줄 기둥이 국어요, 국어가 떠받치고 있는 우리 문화다.

## 6. 국어 교육은 결국 정체성 갖추기다

해외는 물론이고 나라 안에서도 국어가 곧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러기 위한 국어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 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픈 핵심이다. 그것을 겨냥하지 않고 일상 생활에서 말하고 글 쓸 줄 아는 것만을 국어교육이 목표하는 바의 전부로 안다면 그런 교육은 불필요하다. 아니 도리어 하지 않는 편이 낫다. 국어교육은 실용을 넘어서서 가족, 이웃, 직장, 사회 등 모든 사회 집단을 문화 공동체로 결속해 주고, 모든 개인으로 하여금 공동체의 일원이 된 보람을 느끼게 해 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국어교육에서는 그 부분이 많이 훼손되어 있다. 세상도 하루가 무섭게 바뀌고 있거니와 천박하고 말초적인 실용주의가 교육을 휩쓸어버린 여파도 크다. 그래서 부자시간에 만나면 할 말이 없고, 직장의 상하간이 만나도 나눌 대화가 없다. 나눌 수 있는 대화는 이권의 다툼에 관한 화제가 있을 따름이다. 문화를 공유하지 못한 이 시대와 사회의 황폐하고 처절한 단면이다. 국어교육이 그것을 시급히 회복해야 하고, 그래서 민족적 정체성의 기둥 노릇을 제대로 해야만 한다.

혹 오해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다. 세계화의 물결이 노도와 같이 몰밀어가는 세상에 무슨 케케묵은 국수주의적 망발로 민족을 떠드는가고 비난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게 눈을 부라리는 사람이 혹 있다면 LA 폭동의 교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 주기 바란다. 영어를 그렇게나 잘 구사하는 재미한인들이 왜 구태어 한국어를 부등켜안게 되었는지 제발 제대로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이를 바탕으로, 사람은 진정 그리고 궁극적으로 무엇으로 사는가를 재음미해 주기 바란다.

내가 나답게 살고 싶듯이, 남들도 저다운 저로 살고 싶을 것이다. 국어는 그래서 있다. 그러기에 세종대왕도 우리말을 가리켜 ‘나라말씀〔國之語音〕’이라고 하셨거늘, ‘국어(國語)’라는 교과목명은 동양 삼국만 쓴다느니, 군국주의의 잔재라느니, 영어로 하면 결국 코리안이라느니... 어지러운 논리를 갖추어 떠드는 사람이 없지 않은 것도 안타까운 노릇이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세계화란 세계의 모든 사람이 똑같이 사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주고 싶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아는 옛날 이야기를 나도 알기 때문에 가족이고 부자간이듯이 우리는 우리가 지닌 우리말로 된 문화가 있기에 우리다. 국어를 교육하는 일은 나라 안에서나 밖에서나 그 문화에 동참하게 하는 일임을 확인해야 한다.

세계화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우리답게 살아가면서 인류애를 실천하는 길임을 분명히 아는 일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시점이다. 또한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국어 교육이 세계화의 전제임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거센 물결 속에 우리는 지금 서 있다.